



차명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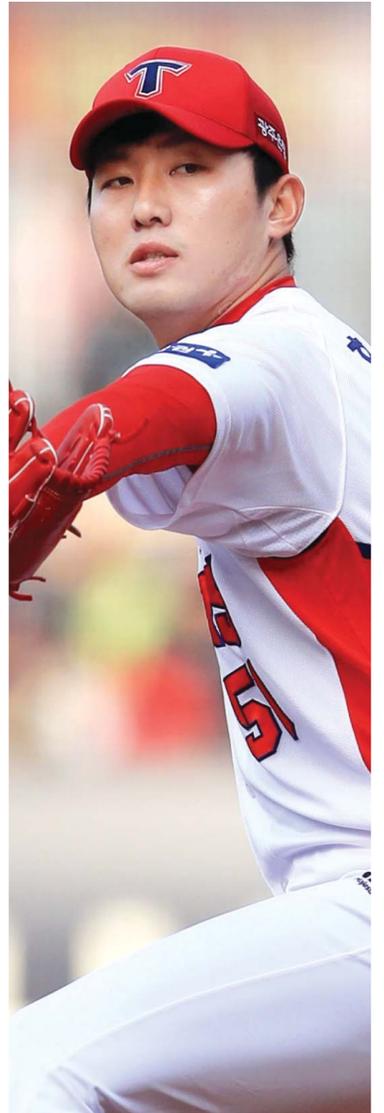
최형우



안지훈



나지완



홍건희

# KIA, 반전이 필요해

## T 타이거즈 전망대

타선의 '집중력', 마운드의 '반전'이 필요한 KIA 타이거즈다.

KIA는 앞서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를 상대하며 힘겨운 한 주를 보냈다. NC에 두 경기 연속 끝내기 패를 당하는 등 스윙을 기록했고, 두산에도 루킹 시리즈를 남기는 등 단 1승을 거두는 데 그쳤다.

역전히 KIA의 자리는 9위다. 하지만 이제 8위 KT 위즈가 두 경기 차 밖에 있다. '가을잔치'의 마지막인 5위와는 무려 9.5경기 차다.

무기력한 패배가 더해지고 있지만 아직 2019시즌의 반환점은 돌지 않았다. 초심으로 끝까지 가는 승부를 펼쳐야 하는 KIA다.

강팀을 연달아 만난 지난주에 비해 KIA는 새로운 한 주 조금은 수월한 상대들을 만난다.

KIA는 주중 6위 삼성 라이온즈와 안방에서 대결을 가진 뒤 주말에는 사직으로 가서 최하위 롯데 자이언츠를 만난다. 올 시즌 두 팀과의 전적은 각각 3승 3패로 호각지세다.

시작이 중요한 시리즈다. KIA는 11일 차명진을 선발로 내세워 삼성 해리리를 상대한다.

로테이션상으로는 사직 3연전의 시작 날인 14일

지난주 1승 5패...하위권 교착  
이번주 삼성·롯데와 6연전  
차명진·홍건희 4·5 선발

■ **投**  
연일 박빙 승부 불펜 피로 과중  
선발, 연패 끊고 분위기 쇄신 책임

■ **打**  
두산전 대승 후 5경기 14득점 그쳐  
산발 안타 문제...타선 집중력 필요

에는 홍건희가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변수 많은 4·5선발이 시리즈 첫 경기에 나서게 되는 만큼 이들의 어깨에 남은 경기의 흐름도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3연패 상황에서 한 주의 스타트를 끊는 차명진의 역할이 중요하다.

차명진은 지난 5월 24일 KT전을 시작으로 선발로 3경기를 소화했다. 5월 30일 한화전에서 프로 데뷔 첫 승을 기록했지만 세 경기에서 13.1이닝을 소화하는 데 그쳤다. 앞선 두산전에서도 구위가 떨어

지면서 4이닝에서 차명진의 등판이 마무리됐다.

KIA는 지난주 4경기에서 1점 차 패배를 당했다.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면서 불펜의 피로도가 높았고, 결과는 좋지 못했다. 올 시즌 KIA의 희망으로 꼽히는 '젊은 불펜진'까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의 한주인 만큼 4·5선발의 반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타선의 집중력이 절실하다.

KIA는 젊은 야수진이 중심이 된 지난 6일 두산을 상대로 대거 16안타를 몰아치면서 12-3의 기분 좋은 대승을 거뒀다. 하지만 남은 5경기에서 KIA의 득점은 14점에 그쳤다.

안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두산 유혁관을 상대했던 4일 KIA는 터커와 신병수의 2루타 포함 14개의 안타를 쏟아냈지만, 홈에 들어온 주자는 단 두 명에 불과했다.

7일에도 최형우의 솔로포 등을 포함해 NC보다 하나 더 많은 8개의 안타를 만들고도 1득점에 만족해야 했다. 9일 경기에서도 KIA는 나지완의 솔로포 포함 12개의 안타를 생산해냈지만 9개의 안타를 기록한 NC에 3-4패를 당했다.

승률을 높여야 하는 4·5선발과 기회에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야 하는 타선. 무엇보다 공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끈질긴 승부와 생각하는 플레이가 KIA 반전의 필수요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 KBO중간순위 (10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SK	65	42	22	1	0.656	0.0
2	두산	66	41	25	0	0.621	2.0
3	LG	64	37	27	0	0.578	5.0
4	NC	64	35	29	0	0.547	7.0
5	키움	67	36	31	0	0.537	7.5
6	삼성	64	29	35	0	0.453	13.0
7	한화	64	28	36	0	0.438	14.0
8	KT	66	28	38	0	0.424	15.0
9	KIA	65	25	39	1	0.391	17.0
10	롯데	65	23	42	0	0.354	19.5

## 잠 못드는 '축구의 밤'

축구대표팀 오늘 이란과 평가전  
U20 월드컵 내일 새벽 4강전  
여자축구 내일 밤 조별리그 2차전

'축탁'(축구+탁아)들이 잠 못이르는 즐거운 축구대회가 찾아온다.

11일 오후 남자축구 대표팀 평가전을 시작으로 12일 새벽 U-20 월드컵 4강전, 여자 월드컵 조별 예선 경기 등이 잇따라 펼쳐진다.

시작은 남자대표팀이다.

공격수 황의조(김바오사키)의 결승골로 호주전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한국대표팀(피파랭킹 37위)은 1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마크 빌모츠 감독이 이끄는 이란(피파랭킹 21위)과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를 펼친다.

이란과의 역대 A매치 상대전적은 9승 8무 13패로 열세다.

이번 매치는 케이로스 감독이 이란 감독에서 물러난 이후 첫 경기이다.

케이로스 전 감독이 이끈 이란은 한국에 유독 강했다.

한국은 지난 8년간 케이로스 감독 체제의 이란에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다섯 번 싸워 1무4패를 기록했으며 골도 기록하지 못했다.

이번이 이란과의 필진 악연을 끊어 낼 수 있는 기회다. 한국전에서 2번의 결승골을 넣는 등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인 공격수 사다르 아즈문(24·제니트)의 부상은 대표팀에게 호재다.

또 이날 광주 금고고 출신 오른쪽 풀백 김태환(30·울산)의 첫 A매치 데뷔 여부도 관심사다. 김태환이 출장하기 위해선 대표팀 발탁이 이용(33·전북), 김문환(24·부산)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다음날 새벽에는 아우들이 출격한다.

36년 만에 멕시코 4강 신화를 재현한 U-20 대표팀은 12일 새벽 3시30분 폴란드 루블린에서 열리는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남미의 강호 에콰도르와 결승행 티켓을 다툰다.

광주·전남 출신 김정민(리퍼링), 엄원상(광주), 황태현(안산그리너스) 선수가 출격 대기중이다.

한국의 결승진출을 위해서 체력 회복이 급선무다. 세네갈과의 8강전에서 정규시간, 연장전,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로 체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다행히 대표팀은 FIFA가 제공하는 전세기를 타고 결전의 장소 루블린으로 향했다.

U-20 월드컵의 이동 수단은 버스지만 FIFA는 4강 진출국 한해 경기장으로 이동 시 전세기를 제공하고 있다.

에콰도르를 꺾으면 이탈리아와 우크라이나의 승자와 오는 16일 새벽 1시 폴란드 우치 스타디움에서 우승을 다투게 된다.

이날 오후 여자축구 선수들도 월드컵 첫승에 도전한다.

여자 월드컵 2회 연속 16강 진출을 노리는 한국 여자 대표팀 선수들은 12일 밤 10시 프랑스 그르노블의 스타드 데잘프에서 나이지리아와 대회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벌인다.

지난 8일 개최국 프랑스와의 개막전에서 0-4로 패배한 한국은 나이지리아에 골목길에 1점 뒤져 A조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24개국 출전한 이번 월드컵 대회에서는 각 조 1, 2위 12개 팀과 와일드카드 조 3위 중 성적 상위 4개 팀이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16강 진출을 위해선 A조 최약체로 꼽히는 나이지리아전 승리가 필수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나이지리아는 피파랭킹 38위로 14위인 한국보다 한 수 아래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광양제철고 우승 도전

대한축구협회장배 고교축구  
오늘 전주영생고와 결승전

전남드래곤즈 U-18 광양제철고가 제40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고교축구대회 우승을 노린다. 광양제철고는 11일 오전 11시 제천종합운동장에서 전주영생고와 대회 우승 트로피를 놓고 격돌한다.

광양제철고는 8강전에서 충남기계공고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 끝에 준결승에 올랐다. 서울이랜드 FC와의 준결승전에서는 전반 16분에 나온 문성후의 골을 지키면서 1-0 승리를 거뒀다.

광양제철고 이재승 감독은 "오랜만에 결승에 오른 만큼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로 대회를 마치고 싶다"고 결승 진출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동성고 '창' vs 인천고 '방패'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17일 첫 경기

주말리그에서 12연승을 달린 광주 동성고가 황금사자기에서 질주를 이어간다.

동성고는 지난 8일 순천 팔마야구장에서 열린 나주영산고와 주말리그 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고승완, 김재우, 이현우 홈런 등 장탄 10안타로 13-1 대승을 거뒀다.

이와 함께 동성고는 주말리그 후반기 4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전반기 경기까지 포함하면 주말리그 12전 전승이다.

12연승을 지휘한 김재덕 감독은 "조 편성이 좋았고 선수들이 알아서 잘해줬다"며 잘 뛰어준 선수들에게 공을 돌렸다.

올 시즌 주말리그 전라권은 기존 한 권역에서 A조와 B조로 나뉘어 진행됐다.

동성고는 지역 라이벌인 광주일고, 광주 진흥고를 피해 정읍 인산고, 군상고, 나주 영산고, 고창 영선고와 전라권 B에서 대결을 펼쳤다.

대전은도 따랐지만 지난해 청룡기 우승을 경험한 선수들의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12연승의 힘이 됐다.

김 감독은 "주말리그는 선수들에게 맡겼다. 벤트 같은 것 잘 안 하고 공격적으로 풀어가려고 했다. 주전 대부분이 3학년이기 때문에 주장 김형창을 중심으로 알아서 잘해줬다"며 "지난해 청룡기 우승할 때 뛰었던 3루수, 유격수, 2루수, 포수, 중견수, 우익수 등 멤버들이 그대로 뛰고 있다. 경기장에서 긴장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동성고는 황금사자기를 통해서 또 다른 연승 도전에 나선다. 동성고는 오는 17일 오후 12시 목동야구장에서 인천고와 대회 첫 경기를 갖는다. '짜임새 있는 방망이' 동성고와 '빠른 마운드' 인천고의 창

과 방패의 대결이다.

경험 있는 구석 좋은 타선이 김 감독이 기대하는 큰 전력이다. 김 감독은 "빠른 타자, 장거리 타자, 작전 수행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위치에 맞게 잘 되어 있어서 쉬어가는 타선이 없다"며 "타선 자체가 잘 빠져서 수비도 좋다. 발이 빠르다 보니 수비 범위도 좋고 내야가 탄탄하다. 1학년 때 청룡기 우승했던 포수 김시양이 올해는 2학년으로 뛰고 있다. 올해 야수들이 좋다"고 공식 밸런스가 좋은 야수진을 동성고의 장점으로 꼽았다.

전국구 투수 김기훈(KIA)이 버티고 있던 지난해에 비해 마운드의 힘은 떨어지지만 김민규, 김동은, 오승훈 등이 황금사자기에서 상승세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최고 구속 147km를 찍은 1학년 신현민도 '깜짝 카드'로 준비되고 있다.

김 감독은 "첫 경기가 중요하다. 첫 경기만 잘 풀면 경험 있는 선수들이라서 자신감 있게 잘 풀려갈 것 같다. 인천고전 승리를 위해 잘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